

Courier Correo Courier

표지 이야기
2016년
10월 31권 2번



**Mennonite
World Conference**
A Community of Anabaptist
related Churches

**Congreso
Mundial Menonita**
Una Comunidad de
Iglesias Anabautistas

**Conférence
Mennonite Mondiale**
Une Communauté
d'Eglises Anabaptistes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MWC)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들의 공동체

3

감동과 성찰

더 큰 화합을 위한
독특한 기회

8

아나뱃티스트의 관점

MWC 소속
교회들은 어떻게
MWC의 공통
신앙 고백을 각
교회의 아름다운
다양성에 근거하여
표현하는가?

15

동 아프리카

기쁨의 희망과 신앙

17

자료들

인도네시아 2021,
2027 재개편,
MWC의 지역
대표들을 만나볼
기회. 그 밖에.



편집자의 말



아나뱃티스트란 무엇인가?

아나뱃티스트가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2백만명 이상, 87개 국에 있는 305개의 그룹을 대표하는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들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MWC의 지체 교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MWC와 글로벌 아나뱃티스트 프로파일 (Global Anabaptist Profile: GAP) 기관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모았다.

그 결과 GAP는 24개국의 교회들을 표본집단으로 뽑았고, 연구원들을 훈련시켰다. “더 큰 화합을 위한 독특한 기회” (3-7 페이지)를 보면 엘리자베스 밀러(Elizabeth Miller)가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 나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GAP은 이번 CCC의 10-11페이지에 실려있는 MWC의 일곱 가지 “공통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모든 연구 계획이 구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0-11페이지 또는 MW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가지 신앙고백은 종파나 교단, 또는 교단 안의 문화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아나뱃티스트로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간단한 증언이다.

아나뱃티스트의 관점 (8-14페이지)를 보면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짐바브웨의 교회들이 어떻게 각자의 지역적 생활과 문화적 특성에 맞게 이 공통 신앙고백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종교 개혁 50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시작되었는지를 되돌아 볼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아나뱃티스트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95개조 반박문이 걸린 지(1525) 500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난 몇 년 후에 아나뱃티스트의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일 것이다. 교회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인 개편2027을 계획하고 있다. 혼란과 의문으로 시작했고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성숙시킨 우리의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어떻게 하면 수많은 충돌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장이 단지 수치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살림을 전파하는 생활양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와 같은 개편이 우리의 단결과 하나됨을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의 공통 신앙고백이 아나뱃티스트들과 연관된 다른 교회들과 가까워지도록 도울 수 있을까? 교회들의 지역이나 언어에 따라 복음이 약간씩 다르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고백은 우리를 전세계 아나뱃티스트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 메노나이트 크리스천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도울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500년이 우리가 지나온 500년을 특징짓는 교단의 분열을 없애고 전에 없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뒤에 또 다시 ‘아나뱃티스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대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고린도후서 5:18).

-칼라 브라운(Karla Braun)

‘전 세계 메노나이트-아나뱃티스트 가족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사진: 조나단 찰스

Courier Correo Courier



Volume 31, Number 2

Courier/Correo/Courrier is a publication of Mennonite World Conference. It is published twice a year, containing inspirational essays, study and teaching documents and feature-length articles. Each edition is published in English, Spanish and French.

César García Publisher
Kristina Toews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Karla Braun Editor
Melody Morrisette Designer
Glenn Fretz Visual Identity Consultant
Sylvie Gudín French Translator
Marisa & Eunice Miller Spanish Translators

Courier/Correo/Courrier is available on request. Send all correspondence to: MWC, Calle 28A No. 16-41 Piso 2, Bogotá, Colombia.

Email: info@mw-cmm.org
Website: www.mw-cmm.org
Facebook: www.facebook.com/MennoniteWorldConference
Twitter: @mw-cmm
Instagram: @mw-cmm

Courier/Correo/Courrier (ISSN 1041-4436) is published twice a year. See mw-cmm.org/courier for publication schedule history.

Mennonite World Conference,
Calle 28A No. 16-41 Piso 2, Bogotá, Colombia.
Publication Office: Courier, 50 Kent Avenue, Suite 206,
Kitchener, Ontario N2G 3R1 Canada
Publications mail agreement number: 43113014
Printed in Canada at Derksen Printers using vegetable-based inks on paper from a responsible sustainable forest program.

더 큰 화합을 위한 특별한 기회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MWC)는 글로벌 아나뱃티스트 프로파일(GAP)을 통해 MWC 교회들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엘리자베스 밀러 (Elizabeth Miller), 세계 아나뱃티스트 연구원

테 (Amor Viviente)의 레이날도 발렌시오 (Reynaldo Vallencillo) 연구원이 말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GAP 연구 모임, 교회 지도자들과 2015년 회담에 참가한 GAP 스태프들

사진: 세계 아나뱃티즘 연구 기관

최 근 3년간 수행된 MWC의 24 개 회원 교회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GAP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며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남반구의 교회들에서 이 같은 사실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MWC의 성장이 눈에 띄게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를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북반구와 남반구를 아울러 적용할 수 있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GAP의 연구에 참여한 교회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각 교회를 부흥시킬 새로운 방법과 통찰력을 얻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온두라스의 아모르 비비엔

에티오피아의 메세레테 크리스토스 교회 (Meserete Kristors)에 다니는 티기스트 겔라글 (Tigist Gelagle) 연구원도 위 말에 동의했다. “문화적 맥락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나뱃티스트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나뱃티스트의 뿌리를 우리 교회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아나뱃티스트 연구원 (Institute for the Global Anabaptism)의 후원으로 GAP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MWC 회원 교회들의 현실을 가장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했다. 5 개 대륙에 걸친 24 개 MWC 회원 교회가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각자의 교회에서 설문을 진행할 연구 보조원들을 임명했다.

2013 년, 연구원들은 연구의 접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GAP의 대표인 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다

글로벌 아나뱃티스트 프로필에 참가한 교단들

- 아르헨티나 (Iglesia Evangelica Menonita Argentina)
- 브라질 (Alianca Evangelica Menonita)
- 캐나다 (Brethren in Christ General Conference)
- 캐나다 (Evangelical Mennonite Conference)
- 콜롬비아 (Iglesias Hermanos Menonitas de Colombia)
- 콩고 (Communauté Mennonite au Congo)
- 콩고 (Communauté des Eglises de Freres Mennonites au Congo)
- 에티오피아 (Meserete Kristos Church)
- 독일 (Arbeitsgemeinschaft Mennonitischer Brüdergemeinden)
- 독일 (Arbeitsgemeinschaft Mennonitischer Gemeinden in Deutschland)
- 과테말라 (Iglesia Evangelica Menonita de Guatemala)
- 온두라스 (Organizacion Cristiana Amor Viviente)
- 인도 (Bihar Mennonite Mandli)
- 인도 (Conference of the MB Churches in India)
- 인도네시아 (Gereja Injili di Tanah Jawa)
- 말라위 (BiC Mpingo Wa Abale Mwa Kristu)
- 니카라과 (Convencion de Iglesias Evangelicas Menonitas)
- 파라과이 (Convencion Evangelica Hermanos Menonitas Enlhet)
- 파라과이 (Vereinigung der Mennoniten Brüder Gemeinden Paraguays)
- 필리핀 (The Integrated Mennonite Church of the Philippines)
- 남아프리카 (Grace Community Church)
- 미국 (Brethren in Christ General Board)
- 미국 (U.S. Conference of Mennonite Brethren Churches)
- 짐바브웨 (BiC Ibandla Labazalwane kuKristu eZimbabwe)

D. 로스 (John D Roth, 미국 인디애나 고센 대학)와 콘라드 카나기(Conrad Kanagy, 미국 펜실베이니아 엘리자베스 타운 대학)를 만났다. 이들은 MWC의 일곱 가지 공통 신앙 고백에 바탕을 둔 중요한 질문들과 그 외 특별한 신앙 고백과 실천에 관한 추가 질문들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설문지는 26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검토를 위해 영어로 재 번역되었다.

연구원들은 2013년부터 선별된 교회들을 방문해서 GAP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했으며 인터뷰를 실시했다. 가까운 교회들은 직접 방문하였고, 방문하기 어려운 교회들에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콩고 메노나이트 공동체(Communauté Mennonite au Congo)나 콩고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 공동체(Communauté des Eglises des Freres Mennonites au Congo)와 같이 멀지만 꼭 방문을 해야 했던 지역들도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조사를 해야 했던 교회들도 있었다.

연구원들은 2015년에 다시 모여 자신의 경험과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에 다른 교회들에 대해 비슷한 연구를 한 경험이 있었던 카나기가 몇 년에 걸친 연구 기간 동안 함께 참여하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연구 결과는 403개 교회를 대표하는 18,299명의 개인들을 표본집단으로 삼았다.

“[GAP]는 엄청 수고로운 작업이었다.”라고 카나기가 말했다. “3년 안에 연구의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MWC의 회원 교회들은 누구인가?

금년 후반에 발간될 GAP의 결론은 교회간의 차이점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교회들 안에서 나누어지는 공통적인 영역을 확인한다. 설문을 통해 크게 알게 된 사실은 북반구 교회(북아메리카, 유럽)들과 남반구 교회(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들의 차이가 교단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었다.

- GAP 조사에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6세였다. 그러나 대륙 별로 평균 연령을 확인하면 상당한 차이가 보였다. 북아메리카 및 유럽 교회의 응답자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응답자들보다 평균적으로 10세 이상 연령대가 높았다. 또한 남반구 교회의 성도들 중 54%가 18-45세 사이에 있는 것에 비해 북반구의 교회에서는 34%만이 비슷한 연령대에 있었다. 이는 미래의 교회 성장을 예측하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GAP의 설문 조사로 얻은 데이터는 회개로의 부르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지로의 초대장이고 복음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찬양이기도 했다.

이것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 GAP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균등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여성의 응답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남성의 응답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아프리카의 여성 응답자 비율은 여성들의 문맹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문맹인 성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설문을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전체 GAP 응답자 중 62%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륙 별로 확인하면 아시아 응답자의 경우 90%, 아프리카 응답자의 경우 2/3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의 응답자는 대부분 도시 지역에 살고 있었다.
- 설문에 응답한 MWC 회원 교회들 간에 교육 격차 역시 확인되고 있었다. 교육의 격차는 세계 교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심하게 하는 요소였다. 남반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46~58%였고, 북반구에서는 78~93%였다.
- GAP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신앙을 갖게 된 연령은 19세였다. 북아메리카 응답자의 경우 신앙을 갖게 된 연령이 평균 14세 정도로 대륙들 중에 가장 낮았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23세로 대륙들 중 가장 높았다. 신앙을 갖게 된 평균 연령은 곧 각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교회는 교회 밖에서 성인인 성도들을 전도하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연령이 높은 반면 오래된 교회는 교회 내에서 어린이고 청소년이



가장 위: GAP연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짐바브웨 빅 그리스도 형제 교회(BIC Ibanda Labazalwane kuKristu eZimbabwe) 성도들.

위: 교회들을 방문한 콩고 프레레 메노나이트 교회 공동체(Communaute des Eglises des Freres Mennonites au Congo)의 연구 모임

자라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낮았다. (자세한 내용은 '신앙을 갖게 된 평균 연령' 참고)

- 응답자 중 상당수는 비교적 최근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대답했는데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이런 성장의 원인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응답자 중 1991년 이후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65%였고, 아프리카의 경우 역시 기독교인이 된 지 25년이 채 넘지 않았다고 대답한 성도들의 비율이 54%였다. 한편 북아메리카에서는 1991년 이후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의 비율이 22%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남반구 교회들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대륙 별 신앙을 갖게 된 평균 연도' 참고)

대륙 별 신앙이 받아들여진 평균 시기

북 아메리카 - 1975
 유럽 - 1982
 아시아 - 1984
 아프리카 - 1991
 라틴 아메리카 - 1995

대륙 별 신앙을 갖게 된 평균연령
 북 아메리카 - 13.6
 유럽 - 17.3
 아시아 - 16.3
 아프리카 - 20.7
 라틴 아메리카 - 23.2

아나뱃티스트, 그들의 신념과 실천은 무엇인가?

아나뱃티스트의 공통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과 실천은 GAP 응답자들이 보편



GAP 설문지를 채우고 있는 콩고 프레레 메노나이트 교회 공동체 (Communauté des Églises des Frères Mennonites au Congo)에서 온 여성.

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94%의 응답자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1%는 예수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마찬가지로 대다수 응답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다.

군 복무에 관련된 내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비슷한 대답을 했다. 응답자의 76%는 의무적인 군 복무를 맞닥뜨렸을 때, 비전투 군 복무를 선택하거나 병역 거부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61.9%, 62%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설문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다. 북반구, 남반구의 차이는 교단적인 차이보다 대륙적 차이가 컸는데 대표적으로 교회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의 MWC에 대한 인식은 남반구에서는 55%의 응답자가 갖고 있었고, 북반구에서는 75%의 응답자가 갖고 있었다. 교단 별로 확인을 하면 그리스도 형제 교회가 66%,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가 76%, 메노나이트 교회가 46%로 MWC를 안다고 응답했다.

공동 신앙 고백과 실천에 대한 응답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응답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55%의 응답자는 성경에 써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아메리카 또는 유럽의 응답자 중에 이 말에 동의하는 비율은 20%였다. (북반구 응답자의 74%는 성경의 “상황에 맞는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동 신앙 고백 및 실천에 관한 응답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성경이 하나



인도에서 비하르 메노나이트 교회 (Bihar Mennonite Mandli Etkey)의 멤버가 설문지를 채우고 있다.

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에 동의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응답자 중 55%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고,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응답자의 20%만 이 의견에 동의했다. (북반구 응답자의 74%는 성경을 “상황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에 따라 성경의 내용 중 더 중점을 두는 부분도 달랐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성도들은 구약보다 신약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성도들은 28%만이 이 주장에 동의했다. 남반구의 응답자들은 구약과 신약 모두 비슷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주 강력한 성령의 은사 역시 남반구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더욱 일반적으로 이해되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 및 라틴 아메리카의 응답자의 84%가 방언, 방언을 통한 예언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치유의 은사로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도를 통해 귀신들림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는 응답도 눈에 띄었다. 반면 유럽이나 북아메

GAP이 번역되는 25개국의 언어:

- 아프리카아안스 (남아프리카)
- 암하릭 (에티오피아)
- 바하사 인도네시아
- 치체와 (말라위)
- 치쇼나 (짐바브웨)
- 도르제 (에티오피아)
- 영어
- 엔르헷(파라과이)
- 프랑스어
- 독일어
- 힌디(인도)
- 자바어(인도네시아)
- 키콩고(DR 콩고)
- 링갈라(DR 콩고)
- 오로모 (에티오피아)
- 포르투갈어 (브라질)
- 러시아어
- 신데벨레 (짐바브웨)
- 스페인어
- 스와힐리 (DR 콩고)
- 타갈로그 (필리핀)
- 텔루구 (인도)
- 철루바 (DR 콩고)
- 톰부카 (말라위)
- 소사 (남아프리카)
- 야오 (말라위)

리카에서는 위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대답이 31%에 그쳤다.

북반구, 남반구로 나누어 큰 차이가 눈에 띄기도 하지만 각각 세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귀신들림에서 벗어난 경험이 많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부상이나 질병에서 치유된 경험이 56%로 가장 많았다.

초기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의 강한 특징이었던 개인적 전도에 대한 이해 역시 아주 다양했다. 아프리카 응답자 51%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대답한 반면, 유럽에서는 13%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33% 아시아 응답자와 26%의 라틴 아메리카 응답자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친구를 교회로 초대한다고 대답한 반면, 북아메리카의 응답자 중 크리스천이 아닌 친구를 교회로



정의: 토착화 • “복음이 특정 문화에 뿌리를 내리면서 후에 기독교에 대한 소개로 변화하는 과정, 기독교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풍성해진다.”
(U.E. 우모렌, 나이지리아/ U.E. Umoren, Nigeria)

우리가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또 다른 예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연구원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와 같은 내용이 그들의 조상 숭배의 문화와 유사했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 간의 특별한 역학관계는 GAP 데이터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중요한 차이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이 분단으로 정치, 사회, 경제의 무너짐은 우리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가져왔다. 때로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GAP의 설문 조사로 얻은 데이터는 회개를 촉구하는 부르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지로의 초대장이고 복음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찬양이기도 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은 MWC 안에서의 더 큰 화합을 위한 독특한 기회였다.

연구 기관들은 GAP를 통해 그들이 하 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를 표시했다. 필리핀의 통합 메노나이트 교회의 레지나 몬데즈(Regina Mondez)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회상했다.

마르코스 오로스코(Marcos Orozco)는 GAP의 6가지 목적을 하나의 간결한 문장으로 요약했고, 그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형제, 자매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이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강점과 보완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밀러(Elizabeth Miller)는 국제 아나뱃티스트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및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미국 인디애나 주 고센에 살고 있으며 미국 메노나이트 의회의 의원이다.

글로벌 아나뱃티스트 프로필(GAP)의 목적:

- 세계 아나뱃티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 사명과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에 속하는 교회들 간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의 우선순위의 발전을 알리기 위해
- 미래의 변화와 대조해 기준선을 평가하기 위해
- 미래의 아나뱃티스트 교회 프로필 작업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알폰소 카바냐스(Alfonso Cabanas)가 파라과이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the Convencion Evangelica Hermanos Menonitas Enlhet (Paraguay))와 함께 GAP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초대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9%에 불과했다.

GAP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인 전도는 남반구에서는 일반적인 실천 중 하나이지만 북반구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실천이었다.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에서 확인한 다양한 차이점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모두 하나의 성경을 읽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자기 삶에서 적용할 부분을 찾는 것 역시 아주 다양하다.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지만 각자가 경험하는 성령의 모습은 아주 다르다. 우리 모두 평화 교회의 전통에 동의하지만 군 복무나 경찰의 의무 같은 부분은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다. 우리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감동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연구원들 중에서는 GAP의 결과에서 확인할 차이를 개인적인 일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내전의 상황에서 니카라과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 모임(Convencion de Iglesias Evangelicas Menonitas de Nicaragua)은 군 복무에 대해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다른 형제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마르코스 오로스코(Marcos Orozco)가 말했다. “그 분명한 사실이

MWC 소속 교회들은 어떻게 MWC의 공통 신앙 고백을 각 교회의 아름다운 다양성에 근거하여 표현하는가?

이 특집 기사에서는 전 세계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신앙 고백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MWC의 공통 신앙 고백을 각 교회의 독특한 관점에서 어떻게 형상화하고 의미부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곱 가지 공통 신앙 고백에 대한 전체 내용은 10-1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 우리의 사명과 공통 신앙 고백

우리는 국적, 인종, 계급, 성별 및 언어의 경계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인 신앙과 삶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고, 모든 사람들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세상에 서려고 노력한다. — MWC의 공통 신앙 고백 # 7

by Carlos Martínez García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로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한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되어 있다. 우리가 함께 믿는 것: 아나뱃티스트 교회들의 공통 신앙에 대한 탐구는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와 소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멕시코 내의 불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매일 누군가가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을 통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느꼈다. 특히 일곱 번째 항목이 필자의 감상을 증명한다. “우리는 국적, 인종, 계급, 성별 및 언어의 경계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인 신앙과 삶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고, 모든 사람들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세상에 서려고 노력한다.”

멕시코에 있는 필자의 교회 멕시코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복음주의 교회 연합(CIEAMM)에서 우리는 각 지역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국의 씨앗과 열매라고 믿는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가 도시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한 것 같이(마태복음 9:35) 종합적인 방식으로 평화, 정의,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도 종합적인 치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믿는 것에도 나와있듯이 CIEAMM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령은 곧 우리를 불러 자비로운 사명을 위해 우리를 강하게 한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을 느끼는 고통, 괴로움 등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연민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연민이란 고통에 처한 사람을 알아차리고 상처받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천과 봉사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수는 연민을 느꼈으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보았다. 그것은 예수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이끌었다. (마 9:36, 마 14:14, 막 6:34, 마 15:32-37, 눅 7:12-15).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지로 우리 역시 연민을 느껴야 한다.

CIEAMM은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을 단행본과 디지털북 두 가지로 출판했다. CIEAMM에 소속된 교회들은 각자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책을 연구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재로 사용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일곱 가지 공통 신앙 고백을 설교의 주제로 삼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이 책에 대한 연구 모임을 장려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새신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을 학습 가이드로 주는 것이다.

아나뱃티스트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인쇄물과 디지털 자료는 스페인어로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CIEAMM은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 출판된 것에 대해 깊게 감사한다. 특히나 성도들 중 대부분이 저학력이고 독서습관이 없는 CIEAMM 공동체에서 이 책을 통해 잘 요약된 전 세계 아나뱃티스트 가족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CIEAMM 성도들이 자신들이 “모든 부족과 언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그리스도교가 기초된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주 큰 축복이었다. (계 5:9). 이런 정체성의 확립은 화해의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평화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였다.

CIEAMM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예수의 모범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종합적인 성장을 이루어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모범을 통해 평화의 복음을 섬기고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은 우리가 CIEAMM의 비전이라고 고백한 것에서 발전시킨 우리의 성격적·신학적 토대였다. 이 책을 도구로 CIEAMM의 사람들은 멕시코의 사회, 경제, 종교적 맥락 안에서 아나뱃티스트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가르시아(Carlos Martínez García), 멕시코의 기자이며 목사. 멕시코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복음주의 교회 연합(CIEAMM)의 사회자이다.

21세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과 신앙의 최고 권위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그 의미를 함께 분별했다. — MWC의 공동 신앙 고백 # 4

by Emanuel Neufeld

21세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도전이다! 사람들은 성경의 명확하고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통해 답을 얻는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변하는 21세기에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대 초월적인 메시지 뿐 아니라 일정 시대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성경 구절들 역시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전 신앙 고백에 의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 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2010-2012년, 우리 지역 교회들 안에서는 성관계화 결혼에 대해, 특히 혼전성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고민 때문도 아니었고,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도 아니었다. 이 문제는 모든 세대를 초월한 염려였고, 혈연 가족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교회 가족들 안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함께 성경 공부하기

개인마다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 역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는 것일까?

나이 든 세대 중 일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반면 소위 “불타버린 아이들 (Burned Children)”이라고 불리는 엄격한 교회 규율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한 일이 반복될까 걱정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세대의 사람들 100명이 답을 찾는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는 모습을 보게 되어 아주 기뻐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쳤다.

1. 개인 및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기간: 팀 게덜트(Tim Geddert)의 책 *이제 다 괜찮다(All Right Now)*의 한 부분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 주었다. “하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우리는 서로 다르게 듣는 것일까?”

2. 첫째 날 저녁, 우리는 해답을 찾는 과정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 문화적 변화, 해석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획된 단계에 대해 나누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었다.

3. 그 후 이틀 밤 동안, 우리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성경에 기초한 성관계와 결혼의 이해’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강연 후에는 이와 같은 이해가 우리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가장 모두의 공감을 얻은 결론은 성욕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유일하고 그 다른 그 어느 누구도 포함하지 않는, 평생 안정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4. 네 번째 밤은 우리가 그 동안 들었던, 말했던 모든 것을 밝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성욕과 결혼의 어떤 부분에 대해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사적인 영역 외에 공동체가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었다.

답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선을 긋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선 위에 설 것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비언어적 표현들은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각 사람들이 그들을 마주할 지 아니면 피할 지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선 위에 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이 그 위치에 서 있는 이유를 짧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이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비록 의견들은 폭 넓게 펼쳐져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의견 역시 십자가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차이를 넘어선 화합.

이후 몇 주 동안 우리 안에 장로들과 설교자들은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 다시 의견을 나누었다. 모든 논점에서 하나의 합의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의견을 나누는 과정과 내용을 회중에게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자’는

부분에는 모두 동의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논의들을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적은 것도 아닌 이 기록을 길잡이로 받아들여자는 것에 동의했다. 사실 “사랑하는 연인이 어느 정도까지 애정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간단한 대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체 과정을 돌아보면서 지역의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끔 우리에게 그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정을 서둘러 나누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 교회들은 스스로 이 과정을 거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지역의 상황에 맞춰 스스로 헤쳐나가는 과정 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그냥 수용, 적용한다면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말로 약속한 것들을 서로 지키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그 때문에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밝은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쉬운 일이다. 하지만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모두 지역 교회가 겪는 일반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했다. 또한 스스로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겸손해 질 수 있었다. MWC의 공동 신앙 고백 중 첫 번째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음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걸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겪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이 시대에는 돈, 부, 그리고 나눔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윤리적인 문제들에 의해 도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하지만 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우리가 믿음의 최고 권위로 받아들인’ 성경일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아래 성경을 함께 해석해 나갈 것이다.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빠르고 단순 명쾌한 답변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함께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학습자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뉴펠트 (Emanuel Neufeld), 목사, 북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Evangelische Mennonitengemeind Schänzli), 뮌헨, 스위스

공유 신념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의 일곱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믿음과 삶의 중심 강령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해 신실하게 교제하고, 예배하며, 봉사하고 증거하도록 부르셨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구속하셨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

3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고백 하에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이다.

4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령님의 인도 하에 성경을 함께 해석하고 순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메노나이트 세계 총회(MWC)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들의 공동체



**Mennonite
World Conference**
A Community of Anabaptist
related Churches

**Congreso
Mundial Menonita**
Una Comunidad de
Iglesias Anabautistas

**Conférence
Mennonite Mondiale**
Une Communauté
d'Églises Anabaptistes



5 예수님의 영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자들로서 폭력을 배척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눈다.

6 우리는 상호 책임의 정신으로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

7 우리는 전 세계적인 믿음과 삶의 신앙 공동체로서 국적, 인종, 계층, 성별,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권세에 순응하지 않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고,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초청한다.

우리의 이러한 신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며 제자도를 실천했던 16세기 아나뱃티스트 선조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확신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
2006년 3월 15일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총회에서 채택.

인도네시아 세마랑을 향한 종합적인 보살핌

전 세계적인 신앙과 삶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국적, 인종, 계급, 성 및 언어의 경계를 초월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며, 모든 사람들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삶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MWC의 공통 신앙 고백 #7

by Lydia C. Adi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지방 정부 기관 및 종교 기관의 지원을 받아 종교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역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살폈다.

교회는 이슬람 형제 자매들과 다양한 종교인들을 환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했다. “그들은 적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빅터 푸르노모(Victor Purnomo)는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왕국 복음주의 교회(Jemaat Kristen Indonesia Injil Kerajaan)의 목사이다. “증오와 분노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면 교회는 도시의 요구를 들어주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지역 시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역을 해 나갔다.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교회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 도움에 대해 빠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합적인 보살핌

지역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교회의 노력으로 나라의 빛 학교(Sekolah Terang Bangsa)를 비롯한 초등, 중, 고등학교가 세워졌다. 교회가 운영하는 이 학교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사역은 많은 부모님의 마음을 열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자녀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보살피는 것을 본 부모는 아주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빅터(Victor) 목사가 말했다.

교회는 또한 재난 구조와 같은 사역을 통해 이웃들과 가까워졌다. “교회는 지역 사회의 필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즉각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빅터 목사가 말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 교회가 반응을 해야 한다.”

이런 사역이 정부와의 관계를 세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여



교회는 단순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한다.

유 있는 시설들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얼마 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뗏목에 봉사자들을 태워서 음식과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보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놀라운 기관이다. 나와 같은 종교의 사람들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데 교회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치유의 기도

쌀, 채소, 식용유, 의류 및 기타 물건들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야외 시장에서 교회의 또 다른 사역이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사역은 십자군 운동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모두와 나누는 데에 더 중점을 둔 결과였다. 사역을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이 국가적인 자부심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곡이나 당시 인기 있는 곡들을 부르며 더불어 눈에 띄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있지는 않은 기독교 노래를 불렀다. 그 후에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르면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을 고쳐주신 분이 주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치유가 되기만 한다면 자신을 치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몇 천의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돕고 있는 사역 중에는 라마단 기간(이슬람의 금식 달) 밤에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있다. 일 면에 4주 동안 매일같이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면서 퍼마타 히자우(Permata Hijau, 세마랑의 초록 다이아몬드 지역)의 위성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모임, 게임, 상품들, 이야기들을 위해 교회의 문을 열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이끌었다. 봉사자들은 사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했고, 교회가 맺은 열매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사역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금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다.

존중되는 평판

이슬람 기속 학교, 폰독 페산트렌(Pondok Pesantren)에서는 교회 자원 봉사자들이 비록 손님으로 가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머리 덮개를 착용한다. 그들은 비전, 사랑, 용서와 같은 가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이슬람 학교들이 교회의 크리스마스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 각자 신앙의 풍습대로 기도를 한 후에, 무슬림들은 앉아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들었다. 학생들은 기독교인 친구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라고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가치들을 알려주는 점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활동이 학생들의 관심을 자극했다. 학교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에 대해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경찰들도 공개적으로 교회를 지지했다. 종교적 과격주의자들이 세마랑에 있는 교회들을 위협했을 때도 경찰이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JKI 인질 케라잔과 같은 교회는 “기독교화”를 조장한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가난에 빠진 사회를 도왔을 뿐이라고 대응했다. 그들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해나갔다. 보고자들도 역시 교회가 자신들이 종교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했기에 경찰은 교회를 변호해 주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가 다른 기관들과 맺고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한다. 잠재적으로 사역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종합적인 보살핌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상명령(마 28: 18-20)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마 22: 35-40)을 염두에 두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리디아 C. 아디(Lydia C. Adi)는 국제 관계에 있어 제마앗 기독교 인도네시아 총회(Jemaat Kristen Indonesia Synod)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풀러 신학 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 USA)과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영어교육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남편인 안톤 K. 시드하르타(Anton K. Sidharta)는 웅가란(Ungaran)의 JKI 마라나타(JKI Maranatha)의 협동 목사이다. 그들은 'Unlimited Fire JKI 청소년 네트워크'를 설립했으며 교회가 교단과 국가를 초월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nton와 Lydia는 아들 Caleb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웅가란(Ungaran)에 살고 있다.

짐바브웨 삼위일체의 찬양과 살롬

예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돕는다.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폭력을 거부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재산을 나누는 평화주의자(peacemaker)가 된다.

—MWC의 공통 신앙 고백 # 5

by Bekitemba Dube

짐 바브웨 그리스도 형제 교회(Brethren in Christ Church)는 전 세계 아나뱃티스트 가족의 신앙과 습관을 공유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안에는 우리의 믿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신학이 담겨있다. 시골의 교회에서도, 도시의 교회에서도 부르는 줄루 찬양 75번 '아마가마 오콜라벨레라: 시노물로보 웅구제수 우노단도(예수는 사랑하는 친구)'가 그 예이다.

2016년 5-6월에 진행된 간단한 설문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당시 많은 교회의 예배에서 이 곡이 찬양되었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장례예배에서도 찬양되었던 이 곡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해 주는 찬양이다.

이 곡에서 설명하는 예수의 특징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예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 예수는 실망하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며 자신의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수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는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부른다.'

이 곡의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의 사랑을 향해 나오도록 부름 받은 신도들이 승리의 약속을 확신한다.

또 다른 예로, 줄루 찬송가 4번이 있다. 이 곡은 그리스도 형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찬양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이 찬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살롬을 믿는다.

우리는 전 세계 아나뱃티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살롬을 믿는다. 우리의 그 믿음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살롬은 첫째, 지역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전쟁과 갈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짐바브웨

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

전 주교였던 스티븐 느들로부(Steven Ndlobu)는 마타벨레랜드 소동이 일어났을 1980년대 당시 교단의 수장이었다. 그는 국내의 교단 지도자들에게 조슈아 누코 모(Joshua Nkomo)와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를 만나기를 권했다. 이 만남의 결과, 누코모-동맹군과 짐바브웨 국방군 5개 부대 간의 유혈 갈등이 끝났다.

(웬디 어번-메드(Wendy Urban-Mead)의 저서 경건한 성(The Gender of Piety)에서 발췌)

갈등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롬을 경험하고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마들레라 부인(Mrs. Madlela)은 자신이 경험한 살롬에 대해 간증했는데 화재사고를 기적적으로 피한 그녀는 후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방화범을 만났다. 당시 마들레라 부인이 방화범에게 했던 말은 "야야, 내가 너에게 한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했니?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주께서 너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힘 앞에 나아오는 것이란다."였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



짐바브웨에서 온 합창단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2015 글로벌 교회 마을(Global Church Village) 무대에서 찬양하고 있다.

음과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아나뱃티스트로서 예수의 본을 따라 살롬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베키템바 두베(Bekithemba Dube)는 짐바브웨의 가장 큰 그리스도 형제 교회의 선교지역인 몫사베지 미션(Mtshabezi Mission)에 있는 에쿠필레니 성경학교(Ekuphileni Bible Institute)의 강사이다. 그는 교사로 일한 적이 있고, 공립 사범대학의 강사였다. 또한 짐바브웨의 BICC를 위한 HIV/AIDS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도 일했으며 몇 해 동안 영어나 느데벨레어의 통역을 하기도 했다. 베키템바는 아내와 살고 있으며 미션스쿨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다.

Zulu Woza Thixo Wethu

Woza Thixo wethu
Onga mandla ethu usizize;
Baba obusayo
Wena onqobayo,
Wena osizayo,
Usibheke.

JesuMbusu wethu
Nqobizithazethu,
Uzahlule;
Vez' amandla akho
Ukuhleng' abakho
Inhliziyo yabo
Ime kuwe.

Moya oyingcwele
Woza usihole,
Sibusise;
Uzihlanzisise
'Zinhliziyo zethu;
Ube phezu kwethu
Silungise.

Nkulunkulu wedwa,
Abathathu 'Munye,
Mananjalo!
Ubukhosi bonke
Naw' amandla onke,
Nal' udumolonke,
Kungo kwakho.

줄루 찬송가 4번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의 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지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지배자인 아버지,
우리의 정복자이신 당신,
우리의 조력자이신 당신,
우리를 지켜보소서.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여,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주소서.
그들을 모두 정복하시고, 당신의 힘을 나타내소서.
온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구속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당신 안에서 굳건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중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원히 굳건하게 서시옵소서.
세계가 당신의 것이고,
권세와 능력이 당신의 것입니다.

캐나다 변화하는 시대, 예수를 중심에 두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고, 세상을 구원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MWC 공통 신앙 고백 # 2

by Palmer Becker

북아메리카의 교회들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16세기 종교 개혁 때 변화의 크기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변화의 시기에 전통적인 믿음에 대해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전의 교회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성도로서 살아갈 용기와 안정성,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MWC의 일곱 가지 공통 신앙 고백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는 주

일부 교회에서 새롭게 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는 주'라는 것이다. 우리의 아나뱃티스트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불가사의와 성스러움에 가려져 우상화되던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발견하고 수 세기 동안 새로운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애써온 것의 연장선으로 오늘날에는 일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우리가 사로잡혀있는 다른 주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주인 되신 예수는 종종 구원자이신 예수보다 강조되기도 한다.

무슬림 형제들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공통 신앙 고백 #2는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지역 공동체에는 약 1만 3천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그들은 관계적 친밀함의 관점보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종종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무슬림 형제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간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예수는 평화

북 아메리카에서는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갈등과 불일치가 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의 해석으로 접근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구약과 서신서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과 동등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공통 신앙 고백 #4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것을 권한다.

우리는 미국의 총기 문화가 발생한 원인과 그 문화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고민의 연장선 상에서 평화주의, 정의, 자원 공유를 이야기하는 공통 신앙 고백 #5는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베트남 전쟁 중, 서부의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국가의 '17세 이상의 모든 청년들은 예비 신병 훈련 캠프에 참석할 것'이라는 요청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많은 메노나이트 청년들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대안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이 도전은 분쟁의 원인과 평화의 성경적 근거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예수는 스승

북아메리카 지역과 전 세계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들이 계속 고민하며 해답을 찾고 있는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기독교 그룹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아나뱃티스트만의 독특한 기독교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다른 기독교 그룹이나 다른 종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 가지 답으로 MWC의 공통 신앙 고백과 더불어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 '화해는 우리 사명의 중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세웠다.

이는 아나뱃티스트 운동과 초기 교회의 기초였던 세 가지 핵심 가치로 2008년 메노나이트 미션 네트워크에서 출판한 소책자, 아나뱃티스트란 무엇인가?에 실려있고 현재까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장기 프로젝트의 기초로 삼았다.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아나뱃티스트란 무엇인가?를 활용했다. 목회자들은 설교의 주제를 세 가지 핵심 가치에서 찾았고, 연구 모임들은 이 가치들이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의 (주)피스빌더 공동체 (PeaceBuilders Community Inc.)의 댄 판토자(Dann Pantoja)는 "우리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였

오늘날에는 일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다."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있었던 워크숍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제서야 드디어 우리는 메노나이트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게 되었다!" 라고 증언했다.

우리가 공통 신앙 고백과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르칠 때, 그 누구도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다. 각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MWC의 공통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마음은 우리의 실천에 영향을 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초기 아나뱃티스트들은 비록 자기들의 믿음이 박해와 조롱을 의미한다고 할 지라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았다. 그들이 남긴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팔머 베커 (Palmer Becker), 목회자이자 선교사. 교회를 개혁했으며 교육자로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아나뱃티스트 신앙인란 무엇인가? 와 아나뱃티스트 기초...독특한 크리스천 믿음의 열 가지 증거 (출판 예정) 이 있다. 팔머와 그의 아내 알디스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키치너에 살고 있으며 장성한 4명의 자녀가 있다.

기쁨의 소망과 믿음

동 아프리카 메노나이트 교회들

by Karla Braun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에서,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알렘누 체콜 (Alemnu Checole)이 세계 메노나이트 역사 시리즈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심장에 머무는 아나뱃티스트의 노래에서 사무엘 아세파 (Samuel Asefa)의 도움을 받아 인용한 말이다. 체콜은 또한 “믿음과 실천은 하나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하나의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전달되면서 다양해졌다. 신앙의 표현은 루오, 마사이, 투르카나, 자나키 등의 다양한 토속어로 표현되고 이해되었다.”고도 말했다.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에서 ‘영생에 대한 희망’, ‘죄 사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인류의 평화와 화해를 향한 확신’과 ‘그 확신을 확인하면서 오는 마음의 평안’ 등을 발견했다. 자기들이 발견한 이런 사실들 덕분에 그들은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을 전 세계적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되게 했고 그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했다.

엘람 (Elam)과 엘리자베스 스타우퍼 (Elizabeth Stauffer) 그리고 존 (John)과 루스 모세만 (Ruth Moseman)은 1930년대 탄자니아(당시에는 탕가니카)에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들어간 최초의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었다. 당시 청년이었고 근처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 제데키야 키사레가 그들이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할 때 통역을 맡았다.

선교 본부는 부족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키로바 (Bukiroba), 무강고 (Mugango), 부망기 (Bumangi) 그리고 니바시 (Nyabasi)에 설립되었다.

각 선교 지역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학교와 병원, 그리고 소녀들을 위한 집이 세워졌다.

이런 움직임의 영향인지 1942년, 동 아프리카 지역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다. 이는 아프리카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커졌고 곧 아프리카 전 지역을 휩쓸었다. “아프리카 동부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바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체콜 (Checole)과 아세파 (Asefa)가 말했다. “이 부흥의 물결이 외지에서 들어간 선교사들과 아프리카인들



당신은 알고 있는가?

- 케냐의 인구는 4천만명 이상이다.
- 케냐의 인구 중 80%가 크리스천, 7%가 무슬림, 13%가 아프리카 토속신앙이고 그 외에 적은 비율의 힌두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 신자들이 있다.
- 탄자니아의 인구는 5천만 이상이다.
- 70%이상의 탄자니아 사람들의 거주지는 시골이다.

사이의 화합을 불러왔고, 두 인종간에 동정과 이해를 불러왔다.”

동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한 것과 같은 이치로 교회 내의 지도자들도 점차 선교사들에서 아프리카의 상황에 대해 더욱 잘 아는 현지 사람들로 전환되었다.

1948년, 탄자니아의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은 원주민 주교, 목사, 장로 이렇게 세

201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어셈블리 16에 참석한 케냐의 동리 메노나이트 교회 (Eastleigh Mennonite Church)의 성가대 (위), 그리고 1981년에 있었던 MWC 총회 회의에서. (덧붙임)

가지 구조 위에 서는 메노나이트 교회를 짓기로 이야기를 했다.

1950년, 15년 이상 평신도 사역자로 섬겨온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들에게는 세례, 성찬, 결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에제키엘 무간다 (Ezekiel Muganda), 안드레아 마베바 (Andrea Mabeba), 제데키야 키사레 (Zedekiah Kisare) 그리고 나숀 카위라 니암복 (Nashon Kawira Nyambok)이 이 때 목사 안수를 받은 네 사람이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느낌, 아프리카 출신의 목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복음 전파 사역을 크게 부흥시켰다.” 체콜 (Checole)과 아세파 (Asefa)의 말이다. 복음주의자들이 여러 장소로 이동하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는 변화의 결실을 맺었다.

1961년, 탄자니아가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주의적인 질문들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청년기 때부터 이미 책임감의 가치를 발견했고, 책임감을 청년기 때부터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탄자니아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다니엘 마토카(Daniel Matoka)가 셰마야 마가티(Shemaya Magati)의 도움을 받아 청년 연합을 세웠다. 청년들은 교회를 청소하거나 헌금 위원이 되기도 했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인도하기 위해 지원하거나 찬양 인도, 정원 가꾸기 등 많은 분야에서 헌신했다.

1964년, 탄자니아 메노나이트 교회는 루오 부족의 제데키야 키사레(Zedekiah Kisare)를 첫 번째 주교로 선출했다. 루오 부족과 또 다른 후보 에제키엘 무간다(Ezekiel Muganda)의 출신 부족인 반투 부족 사이에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하지만 무간다는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평화를 추구했다. 키사레는 1967년 탄자니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선언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임명되었다.

케냐와 탄자니아는 정치적 차이에 따라 부족이 나누어졌다. 1942년, 오파다 오카치(Ogwada Okach)와 니카놀 다제(Nikanor Dhaje)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케냐로 건너가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들은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선교를 떠난 최초의 메노나이트 복음주의자들이었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반데, 낭와천 등의 지역에 이미 생겨나고 있던 그리스천 그룹을 더욱 성장시켰다. 케냐의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그 출발점부터 가난한 사람들로 부터 시작한 “풀뿌리 신앙”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중 필립 E. 오케이(Philip E. Okeyo)의 말이다.

케냐가 독립국이 된 2년 후인 1965년, 메노나이트를 하나의 교단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 신청서가 케냐는 1963년 독립국이 되었다. 1965년에 케냐 정부는 메노나이트를 교단 중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4번째 신청서를 받았다. 하지만 신청서가 받아들여진 후에도 키사레 주교가 케냐에 세워진 목사들과 스스로의 구조를 세우게 되는 1977년 까지 케냐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여전히 탄자니아 교회들의 일부로 분류되었다.

1980년, 이스트레이 협력 센터(Eastleigh Fellowship Centre)가 나이로비에 세워졌다. 도서관, 교실, 운동공간이 있는 협력 센터는 “오늘날의 그리스천들과 다양한 종교들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여가공간을 제공했으며 저임금 가정의 학생들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체콜(Checole)과 아세파(Asefa)가 말했다. 케냐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이슬람 단체와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협력 센터를 통해 평화를 향한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1978년, 우간다와 탄자니아 사이의 전쟁은 메노나이트의 무저항에 대한 신념을 시험했다. 어떤 교회는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느데게(Christopher Ndege)같은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이 시기에 크게 부흥한 탄자니아 교회는 헤제키야 N. 사리아(Hezekiah N. Saria)를 두 번째 교구 주교로 선출했다. 그의 리

아프리카의 메노나이트에 대해 좀 더 배워보자.

- *Anabaptist Songs in African Hearts*, 3rd ed. Global Mennonite History Series 1. Lapp, John A. and C. Arnold Snyder, gen. eds. Kitchener, ON: Pandora Press, 2006.
- *Forward in Faith: History of the Kenya Mennonite Church, A Seventy-Year Journey, 1942-2012*. Ojwang, Francis S. ed. Nairobi: Kenya Mennonite Church, 2015.
- “Kanisa la Mennonite Tanzania.” Global Anabaptist Mennonite Encyclopedia Online. Stauffer, Elam W. and Mahlon M. Hess. 1987. Web. gameo.org
- “Kenya Mennonite Church.” Global Anabaptist Mennonite Encyclopedia Online. Hess, Mahlon M. 1987. Web. gameo.org

더십 아래, 지역간, 부족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교회 성장은 잠시 침체기에 들어갔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의 시기였다.” 체콜(Checole)과 아세파(Asefa)의 말이다. 이후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은 “KMT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케냐 교회 역시 성장통을 겪으며 “하나의 민족 그룹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우간다 안에서만 해도 키쿠유(kikuyu), 루하(Luhya), 미지켄다(Mijikenda), 난디(Nandi), 마아사이(Maasai), 소말리(Somali) 그 외 다른 수 많은 부족들 안에서 세워졌다.” 믿음으로 나아가기에서 오케이(Okeyo)가 말했다.

“복음은 모든 문화에 전파되었고, 그에 따라 모든 전통적 가치에 도전장을 던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의 수백만 그리스천들이 희망과 믿음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음을 이겼고,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이다.” 체콜(Checole)과 아세파(Asefa)가 말했다.

-칼라 브라운(Karla Braun)

케냐의 메노나이트 교회들

Brethren in Christ Church Kenya Conference

출석 인원	4,900
교회 수	25
총회 위치	Nakuru
총회장	Samuel Muriithi (bishop)

Christian Believers Fellowship (Beachy Amish Church)

출석 인원	693
교회 수	16
총회 위치	Kisumu
총회장	Marlin Stoltzfus (senior bishop)

Christian Church International

출석 인원	19,640
교회 수	320
총회 위치	Madaraka, Thika, Central
총회장	Joseph Mburu Kamiri (bishop)

Church of God in Christ, Mennonite

출석 인원	139
교회 수	9

*Kenya Mennonite Church

출석 인원	11,800
교회 수	142
총회 위치	Nango
총회장	Philip E. Okeyo (bishop moderator)

탄자니아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들

*Kanisa la Mennonite Tanzania

출석 인원	65,456
교회 수	400
총회 위치	Musoma
총회장	Steven Watson Mang'ana (bishop)

* MWC의 멤버십 교회들.

출처: MWC 세계 요람 2015

“내 부르짖음을 들으심”

시편 40 : 1-10, 창세기 11 : 1-9, 사도행전 2 : 1-18



MWC 메노나이트 세계 친교 주일(World Fellowship Sunday)은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 세계 아나뱃티스트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이다. 동시에 전세계 아나뱃티스트 형제 자매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연례 행사이기도 하다.

유럽의 회원 교회들은 2017년 1월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도, 찬양, 설교 본문, 간증, 그리고 조리법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오늘날 아나뱃티스트 신앙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교회가 전 세계 아나뱃티스트 가족들과 함께 화목 주일(Fellowship Sunday)을 기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격려 바란다.

www.mwc-cmm.org/wfs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wc-cmm.org/wf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 아나뱃티스트인가?



왜 아나뱃티스트인가? 나는 다양한 종파와 교단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보복이 아닌 화해를 추구하는 아나뱃티즘의 가치가 마음에 들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 역시 인상 깊었다. - 엘리자베스 쿤암, 인도



나는 아나뱃티스트이다. 왜냐하면 아나뱃티스트는 평화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과 대화의 가치를 아는 교회이기 때문이고, 스스로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나뱃티스트는 그 기원부터 갖고 있는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성질 때문에 자신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이기도 하다. -마크 파스케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2021: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세계인의 행사



페브리 카하 키르스티아니 시노데 제마얏 크리스텐 (JKI) 켈루아르가 케라자안 살라티가, 인도네시아

2015 메노나이트 세계 총회(MWC Assembly 2015)는 “지구 상에서 확인하는 천국”과 같았다. 다양한 전 세계에서 온 수 천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 언어,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서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

나는 2021년 메노나이트 세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인도네시아로 초대하게 되어 기쁘다. 다양한 나라에 살고 있는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날 것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 기대가 된다.



아니타 푸르위단시 게레자 크리스텐 유리아 인도네시아(GKMI) 또는 유리아 크리스천 교회 연합, 자바 중부, 인도네시아.

세계 청년 회담 2015 (Global Youth Summit 2015, GYS)에서 대표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우리가 지구 공동체의 일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그 질문은 정말로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었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 것이다.

인도네시아 2021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회의일 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전 세계에 퍼져있는 신앙의 가족을 소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행사를 통해 아나뱃티스트의 젊은 세대들은 매일의 삶에서 아나뱃티스트로서 사는 방식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2021는 수천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혁신 2027 : “말씀으로 변화되기 : 아나뱃티스트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Renewal
Renovación
Renouveau

2017년 2월 12일 일요일.
9:30-16:30
하우스 상트 울리히, 카펠버그 1, 86159,
아우구스부르크, 독일

혁신 2027은 아나뱃티스트 운동의 시작 500주년을 기념해 10년간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이다.

혁신 2027은 2017년 2월 12일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하루 종일 진행될 “말씀으로 변화되기: 아나뱃티스트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라는 주제의 공개 토론회로 시작할 것이다. 유명한 루터의 종교개혁 후 500

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들이 과거에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또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와 성경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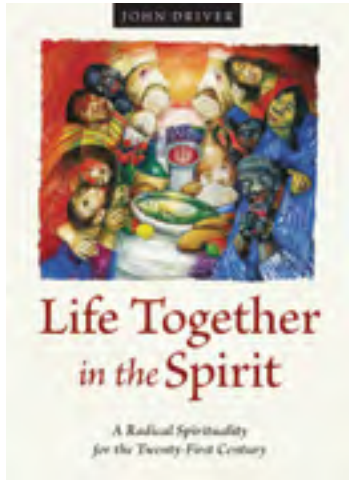
5 개 대륙에서 온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강사들과 전 세계에서 참석한 손님들 모두는 이 주제를 반영하는 예배, 노래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 행사는 MWC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것은 2027년에 있을 메노나이트 세계 총회 18의 하이라이트가 될 지역 연례 행사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mwc-cmm.org/renewal2027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추천도서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의 책장



성령과 함께하는 삶: 21세기를 위한 급진적인 영성

존 드라이버(John Driver) 플로우 퍼블리싱 하우스(Plough Publishing House), 미국 존 드라이버 교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 생활 중 지은 저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영성은 삶 그 자체였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아나뱃티스트의 영성은 오직 예수의 본보기를 따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길을 찾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이버 교수는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길은 홀로 찾을 수 없고, 세계 교회 공동체 안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만 찾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드라이버 교수의 책에는 전세계 아나뱃티스트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의 대답이 담겨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있었던 ‘어셈블리 16(Assembly 16)에서 처음으로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의 책장’에 소개되었다.

MWC가 멤버 교회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책들을 골라 놓은 목록은 mwe-cmm.org/literature를 통해 더 확인할 수 있다.

MWC의 지역 대표들

이 파트 타임 자원 봉사자들은 MWC 회원과 준회원 교회들 그리고 잠재적인 회원 교회들, 지역 의회 및 MWC와 관련된 기관들 및 파트너들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후원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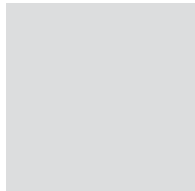
아시아



동북 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한국: 김경중



남아시아 (인도, 네팔)
인도: 신시아 피콕 (Cynthia Peacock)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비어 있음.

아프리카



중서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앙골라, 부르키나 파소, 나이지리아, 가나)
콩고 민주 공화국: 프란시스카 이반다 (Fransisca Ibanda)



동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테스팻션 달레뤼 (Tefatsion Dalellew)



남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짐바브웨: 바르바라 نک칼라 (Barbara Nkala)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헨크 스티버스 (Henk Stenvers)

라틴 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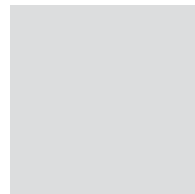
중앙 아메리카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위이 유고 페레즈 (Willi Hugo Perez)



안데스 지역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블로 스텝키 (Pablo Stuc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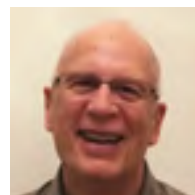


남부 지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페테르, 글라디스 시에멘스 (Peter, Gladys Siemens)



카리브 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비어 있음.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미국: 린 로스 (파트 타임 직원)

MWC 재정 보고

MWC를 돕기 위한 국내 여러 교회들, 지역 교단들 그리고 개인적 후원금의 안정적인 흐름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 후원금이 작년에 비해 천천히 들어와 8월 최종 금액이 예산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잠시 당황했었습니다. 과거의 흐름과 비교할 때 개인과 교회로부터 들어오는 후원이 과 비교해 많지 않았습니니다. 12월에 후원금을 결산할 때 어떤 결과를 확인하게 될 지 기대와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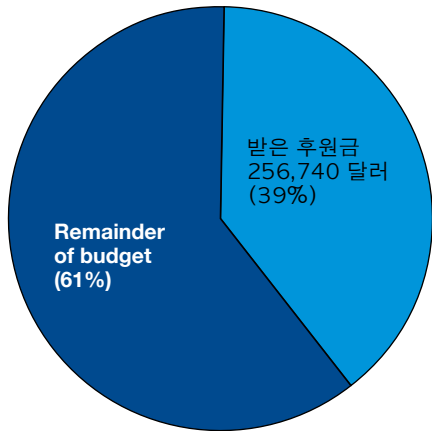
여러분이 각 모임들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MWC의 부서들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실 수 있을 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wc-cmm.org/donate를 참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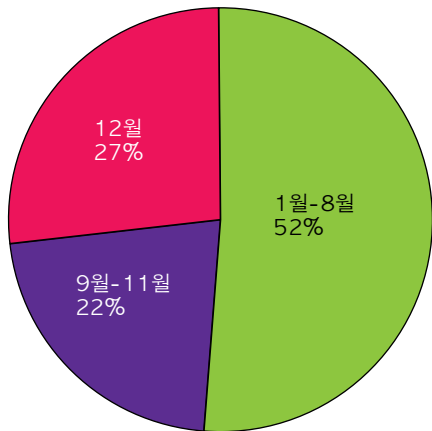
- 렌 렘펠, 최고 운영 책임자

2016년 8월 31일까지 받은 후원금의 예산 안에서의 비율.

2016년 총 예산
663,451 달러



달 평균 후원 비율



자세한 내용은 www.mwc-cmm.org/donate를 참고하십시오.

- 렌 렘펠, 통신 소장

Courier 2016 년 설문 조사 결과

CCC가 2016 년 4 월호에서 실시했던 독자 설문 조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 95%의 응답자가 'Courier를 통해 전 세계 신앙의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잡지 발행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격월로 발행하기를 원하거나 (10%) 분기별로 발행하기를 원하는 (33%) 응답자도 있었지만 절반이 넘는 57%의 응답자가 "연 2회 출분하다"라고 대답했고, 분량에 관한 질문에는 독자 중 3/4 이상(79%)이 "20페이지 분량이면 적절하다"라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절반(42%)은 웹 사이트를 통해 MWC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월간 전자 뉴스 레터로 MWC의 소식을 확인하는 독자들 역시 전체 중 72%였다. 프랑스어권 독자들의 웹 사이트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87%), 영어권 독자들은 e- 뉴스 레터 정보를 가장 많이 구독하는 것(78%)으로 확인되었다. 스페인 독자들 중에 MWC의 트위터 팔로우 한 독자는 없었지만 절반 이상의 스페인 독자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를 눌렀다.

많은 응답자들이 'CCC는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감동과 성찰" (12%) 또는 "개요(Profiles)" (16%) 부분의 비중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독자들의 소리:

- MWC가 실었던 비둘기와 함께 "평화는 복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무지개가 세상을 덮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마음에 들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림을 우리 집 거실에 걸어놓았을 정도이다.
- 이 잡지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도록 격려해주고 나를 전 세계의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연결시켜주는 좋은 잡지이다.
- 우리 안에 있는 형제 간의 교제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내세요.
-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잡지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Give a gift to MWC

Your prayers and financial gifts are deeply appreciated. Your contributions are important. They will:

- Enable and expand communication strategies to nurture a worldwide family of faith,
- Strengthen our communion's identity and witness as Anabaptist Christians in our diverse contexts,
- Build up community through networks and gatherings so we can learn from and support each other.

Go to www.mwc-cmm.org and click the "Get involved" tab for prayer requests and on the "Donate" table for multiple ways to give online.

Or mail your gift to Mennonite World Conference at one of the addresses below:

- PO Box 5364, Lancaster, PA 17808 USA
- 50 Kent Avenue, Kitchener, ON N2G 3R1 CANADA
- Calle 28A No. 16-41 Piso 2, Bogotá, COLOMBIA



MWC 스태프, 집행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청년 아나뱃티스트들이 Courier의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 출처: 인도네시아 Life TV

Photos: Life TV Indonesia



MWC Publications Request

I would like to receive:

MWC Info

A monthly email newsletter with links to articles on the MWC website.

- English
- Spanish
- French

Courier

Magazine published twice a year (April and October)

- English
- Spanish
- French

- Electronic Version (pdf)
- Print Version

Mailing delays? Consider the benefits of electronic subscription. Check this box to receive your *Courier/Correo/Courrier* subscription via email only.

Name

Address

Email

Phone

Complete this form and send to:

Mennonite World Conference
50 Kent Avenue, Suite 206
Kitchener, Ontario N2G 3R1 Canada



Photo: Life TV Indonesia

화합의 기적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국가와 공동체를 화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바벨탑 시대 이후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민하게 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 인류가 찾은 몇 가지 해답을 볼 수 있다.

그 중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공통의 비전과 한 가지 목표를 갖는 것이 화합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뿌리를 공유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그룹끼리는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문제는 그룹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모두를 포괄하는 공통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그룹 구성원들에게 오직 하나의 관점만 제공하고 그 외의 모든 차이를 없애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은 특히 정치나 종교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었는데, 다양성을 파괴하는 이런 방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그룹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믿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그룹 구성원과 그룹 밖의 이방인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종종 활용되고는 했고,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신앙고백이 활용되기도 했다.

우리가 글로벌 아나뱃티스트 프로파일(이하 GAP) 연구를 계획할 때 역시 우리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바로 '메노나이트 세계 총회(이하 MWC)에는 수 없이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는데 그 그룹들 간에 어떻게 화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긴 기간에 걸쳐 '아나뱃티스트로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인가?'의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MWC의 회원 교회들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Courier*에서는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해 연구와 설문을 통해 내린 몇 가지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론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아나뱃티스트 가족들에게 각자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거대한 화합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의문은 '무엇이 이 화합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화합이 가능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몇 년에 걸쳐 만든 공통 신앙고백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MWC의 소속 교회들은 이런 문서 없이도 75년 이상 화합하여 함께 걸어왔다.

또한 화합이 가능했던 것은 공통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도 아니었다. 비록 우리가 아나뱃티스트 교회의 시작을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규정하기는 하지만 모두의 믿음의 기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성경에는 이 화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한가지 설명이 있다. 우리의 세계적인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진정한 성찬은 구조적인 법이나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인종, 부족 그리고 언어의 사람들을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만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중심이고 화합의 기초인 하나님 어린양의 식탁에 둘러앉은 것처럼 성찬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와서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화합을 기뻐하자.

케사르 가르시아, MWC 사무총장(콜롬비아 보고타 본부)